

전주를 선거구 판세 심상치 않다

더민주 현역의원 탈락·인지도 불리 신인 공천...새누리 정운천 유리

제20대 총선 전주를 선거구가 심상찮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이상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경선 결과 최형재 후보는 51.7%를 얻어 48.3%인 이상직의원을 따돌렸다.

여론조사는 5만명 유권자 중 5.5%의 응답을 나타냈고 두후보간 경선표차는 단 90여표로 알려졌다.

내내 정가는 여론조사가 더민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구민들을 상

대로 한만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상직 후보를 배제한 역선택 결과로 풀이했다.

전주는 현역 이상직 후보가 강한 것으로 평가됐던 만큼 이번 탈락으로 여야 예비후보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험 많은 예비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후보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안갯속 판세가 연출되고 있다.

선거를 30여일 앞둔 현재 전주는 이번 결과로 다중 구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의 피말리는 접전이 예고돼 있는가 하면 그 산을 넘어도 상당한 현역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번 경선 결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인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예비후보.

일각에서는 전주가 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 후보는 19대 총선 때 나타난 35.8%대의 지지를 때문이다.

당시 이상직 의원(47.0%)에게 11.2% 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정 후보는 "전주의 경우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 심불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선거 당일까지는 알수 없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내내 재외유권자수 3,259명 확정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내내 재외유권자수가 3,25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체 명부등록자 중 국외부재자가 2,500명이고 재외선거인이 759명이며 남자는 1,755명, 여자는 1,504명이다.

구·시·군별로 전주시(완산구)가 7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익산시 579명, 군산시 442명의 순이며, 진안군이 43명으로 가장 적다. 확정 명부에 등재된 재외유권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마다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와 29개의 추가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으로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해 국적·연령·수형 등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과 열람 및 이의·불복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김무성 “대구 물갈이 현역 의원들에 미안하다”

주호영 의원 “상향식 공천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강력 항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주호영 의원 등 대구 물갈이 희생양이 된 현역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물갈이 첫 희생양이 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컷오프 발표 직후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상향식 공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김 대표에게 강력 항의했음을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미안하다”며 주 의원을 위로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더 이상의 별다른 추가 반응은 없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영남 3선 중진으로 탈락된 데 대해 “제가 다선이라면 대구 경북

최경환, 장운석, 정희수 의원도 다 3선인데 기준이 뭐냐고 친박계 실질적 좌장 최경환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유승민 의원이 탈락할 경우 “무소속 연대” 등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이 내 옆 지역인 수성갑인데 지역구 관리 잘못해서 포기한 것 아니냐”며 “지역구 관리를 가장 못해서 당을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냐”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이 안반집 도련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반집 도련님이나”며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선진화법 모두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직 이한구 위원장의 독선과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관위의 독선과 오만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심 외면결과를 갖고와 정말 걱정할 만한 사태가 생길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최고위에 공관위의 이 같은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줄 것 강력 요청한다. 만약 내가 납득할 수 없다면 저는 대구 시민들과 수성구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성주기자

전북 재보궐선거 총 4곳 확정...익산시장 재선거 등 실시

내내 재보궐 선거에 총 4곳이 확정됐다. 15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내내 재보궐선거로 기초단체장 1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곳 등 총 4곳을

확정했다. 기초단체장은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익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직으로 전주시 제2선거구와 익산시제4선거

구에서, 기초의원의 경우는 전주시 리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8월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는 4월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 보궐선거

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3항에 따라 4월13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과 거소투표신고 및 사전투표기간 후보자홍보물 발송기간, 투표시간 등은 국회의원선거 일정과 같다.

/고민형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농촌 응급 의료체계 구축”

국민의당 김정호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는 농촌의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철저히 상업주의 논리가 적용돼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의사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점점 사람이 줄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다수의 농촌주민들은 농촌 지역에 의료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대도시 의료 기관을 일부러 찾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일부 병원 등에 현대화된 의료장비, 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민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 기자

박희승 예비후보, 김주열 열사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임실·순창)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에 56주기 맞는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김주열 열사는 지난 1944년 10월7일 금지된 응징에서 태어나 마산 상고 재학 중인 1960년 3월15일에 부친정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4월11일 오전 11시에 마산 중앙부두에서 오른쪽 눈 부위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주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박희승 후보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김 열사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현 세대의 몫이며 남원을 민주화의 성지로서의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묘역에 헌화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원시가 추모각 인근에서 추진 중인 추모공원화사업을 연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기자

이강수 예비후보, 정읍·고창 핵심 공약 발표

제20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강수 예비후보가 정읍과 고창에 대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이 예비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 고부면과 영원면 일대에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남북축도로에서 영원면을 잇는 도로를 건설 및 부지 안 대규모 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정읍·고창을 새만금경제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장저수지 일원의 온천관광단지, 내장산·선운산에 미니면접점 위치를 통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인천공항~새만금~고창을 잇는 KTX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에 따라 향후 새만금에는 국내의 대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들과 협력할 기업들을 위한 배후 첨단부품산업단지가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고부·영원”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종열 예비후보, 저소득층 안경 지원 공약

박종열 도의원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대한안경사회회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의 안경 사용률은 2002년 처음 조사 당시 36% 수준에서 2015년 4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는 “안경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학생의 절반 가량이 안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 중 경제적인 문제로 시력이 나빠도 안경을 착용할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차상위 의료·차상위 장애인 가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진행한 후 안경착용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한수 예비후보, 살맛나는 익산 만들기 공약

익산갑 국회의원출마한 국민의당 이한수 예비후보(이하 이 후보)가 민생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며 생동감 넘치는 익산 건설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 재입 시절 조성된 국가식품물류센터와 제3.4일반산업단지, 한일 LED협동단지, 주얼리(터닝)업 유치 등을 통해 모두 8만 100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익산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가량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의 고용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데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공동주택 건설 총력

정현을 국민의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정후보)는 15일 익산시 평화동 일대에 조성 계획중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공동주택 건설은 익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근린상권이 형성되고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지역경제에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지난 33년간의 행정경험과 중앙인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최형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복합 지원센터 건립”

새누리당 최형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거의 민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가족 포함 결혼 이주 여성, 귀화 이주인, 외국인 근로자)을 위한 복합 지원센터 건립하겠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원광대에 위치해 있던 건강가족 지원센터와 시청 앞에 있던 새일 가정분부는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는 대학 내부 사정상 공간을 내줘야 하는 형편인데도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구 도심권에 ‘복합지원센터’를 건립, 다문화 가정과 가족, 결혼 및 귀화 이주인, 더불어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원은 물론 공동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4.13 선거 RUN·RUN·RUN

오정례 예비후보, 지역소상공업 통합유통망 추진 공약

오는 4.13 전주2 재보궐 오정례 도의원 예비후보(국민의당)는 지역소상공업 통합유통망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역소상공업 통합유통망이란 전주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POS와 스마트 POS 앱을 연동해 상품의 재고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가 지역산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오정례 도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소상공업 통합유통망을 공약으로 내건 배경에는 ‘인터넷의 대형 오픈마켓 등으로 지역이 소외되는 유통구조와 대형마트에 의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막아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규모 공장 유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신규로 유치되는 대규모 공장이 생산지동화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미비하고 경기여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오 예비후보는 “지역소상공업 통합유통망이 구축이 되면 소규모의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 분업 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외부의 경기여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여성안전 도시 만들겠다”

정운천(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주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전주 성범죄가 전국평균보다 1.5배 높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며 “여성, 아동 노인 등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개발수요가 감소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촌과 원복촌 등이 밀집해 있어 야간방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후보는 “가로등 등 야간 조명시설을 늘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분부를 반드시 유치해 투자운용시설이 서부신시가지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기자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봉사 활성화 지원”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강후보)는 지난 14일 오전 창인동에 위치한 술술술 자원봉사대 강담에서 열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평일 점심에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술술술 자원봉사대의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오늘 봉사활동에 참석한 강 후보는 “이런 따뜻한 인정이 있어 익산의 희망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봉사문화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면 새마을협의회 주관, 새마을클럽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하여 장신리 일대 대로변의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가며 주민과 함께 애로사항을 듣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술술술자원봉사대는 1988년 설립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 중 하나로 어르신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 교육봉사,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남성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하고, 행정고시 22회를 합격한 후 익산구도관리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경기도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인물로 더불어 민주당이 익산시장 재선거를 위해 인재영입한 후보이다.

/익산=장양원기자